

## ■ 괴운(槐雲) 칼럼



## 구시화문(口是禍門)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구시화문(口是禍門)'이란 모든 화(禍)는 입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명심보감에도 "입고 헤는 화(禍)와 근심의 근본이요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와 같으니(口舌者禍患之門 滅身之斧也)"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하였다. 불교경전 범주경에도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상대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사람의 입(口)은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이다. 입을 통해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신다. 그리고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야 사람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 어디서 있는가를 따져보면 땅(地)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먹는 음식물이란 땅의 기지(地氣)를 받고 자란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입은 땅의 기운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면 천기(天氣)가 들어가는 곳은 어딘가? 코(鼻)다. 사람은 코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 한다. 이 산소가 바로 천기이다. 천기를 흡입하는 코와 기지(地氣)를 섭취하는 입의 사이에 있는 부위가 바로 인중(人中)이다. 사람의 가운데 떨어진 땅이다.

인중(人中)이라는 이름이 된 이유는 천기와 기지의 중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중 위쪽으로는 구멍이 2개씩이다. 콧구멍 2개, 눈도 2개, 귓구멍도 2개이다. 2라는 숫자는 동양의 상수학(象數學)에서 음(陰)을 상징한다. 그런데 인중 밑으로는 구멍이 한 개씩이다. 입도 1개, 배꼽도 1개, 항문도 1개, 요도(尿道)도 1개, 산도(產道)도 1개다. 1이라는 숫자는 양(陽)을 상징한다. 그리고 2개인 음은 많이 쓰는 것이다. 냄새 잘 맡아보고 열심히 살펴보고 잘 귀담아 들어야 하고, 1개는 아껴 쓰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중을 중심으로 위로는 양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입의 위치를 다시 살펴보면 인중 아래로 양(陽)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인체의 양은 입에서부터 비롯된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 만사는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입에서 먹을 것과, 복도 들어오지만 화(禍)도 들락거리는 문(門)이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들어온다. 그래서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는 말이 나왔다. 입은 화(禍)가 들어오는 문(門)이라는 의미이다.

고금의 역사를 보면 말로 인해서 재앙이 초래된 경우가 많다. 심심창해수(心深滄海水) 구중곤륜산(口重崑崙山)

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 씀씀이는 창해수처럼 깊어야 하고, 입은 곤륜산처럼 무거워야 한다." 라는 말이다. "口是禍之門(구시화지문)"이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라는 뜻으로 전당서(全唐書) 설시편(舌詩篇)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당나라가 망한 뒤의 후당(後唐) 때에 입신하여 재상을 지낸 풍도(馮道)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五朝八姓十一君(오조팔성십일군)을 섬겼는데 다섯 왕조에 걸쳐, 여덟 개의 성을 가진 열한 명의 임금을 섬겼다는 말이니 그야말로 처세에 능한 달인이었다. 풍도(馮道)는 자기의 처세관(處世觀)을 아래와 같이 후세인들에게 남겼다.

口是禍之門(구시화지문) :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舌是斬身刀(설시참신도) :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安身處處字(안신처처우) :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풍도(馮道)는 인생살이가 입이 화근(禍根)임을 깨닫고 73세의 장수를 누리는 동안 입조심하고 혀를 감추고 말조심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난세에서도 영달을 거듭한 것이다. 입조심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고사성어도 많다.

守口如瓶(수구여명) : 입을 병마처럼 지킨다.  
禍生於口(화생어구) : 혀는 입에서 생긴다.  
驕不及舌(사불급설) :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의 힘도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  
禍從口出(화종구출) : 혀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病從口入(병종구입) :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

물론 입을 다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분노를 참으면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술의 30초가 기슴의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다. 무심코 내던진 한마디 말이 남의 기슴에 30년 동안 못을 박는다는 말이다. 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남이 되고, 이후하고 원수가 되고, 짐작에 전쟁도 한다. 항상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말을 삼가라는 것은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이다. 차제에 심신(心身)이 편안한 삶을 위하여 '구시화문(口是禍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볼 때다.

**권진규**  
을 주도해 오고 있다. 작품을 위주로 그 생애와 철학과 예술을 서술하고 있다.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노실의 천사'라는 회고전이 사업회 주관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서 5월 22일까지 열리고 있다.

권진규(權鎮圭) 관련 유적은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2-15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1959년 조각가 권진규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1973년 사망하기 전까지 작품 활동을 한 장소로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있다. 그는 추밀공파 37세로 위 조상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진규(鎮圭37)-정주(定周36)-병운(炳殷35)-민식(敏植34)-우경(禹經33)-종선(鍾善32)-인철(仁喆31)-대흥(大興30)

글 권오철 기자

## 이달의 책

## 권진규

비운의 조각가 현재 예술가 권진규(1922~1973, 추밀공파 37세)에 대한 예술적 음미를 위한 서적이 권진규의 조카 허경희(권진규의 누이 권경숙의 둘째 아들)에 의해 저술되었다. 권진규 생애 마지막 4년을 한집에서 살았으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처음 목도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10대학교에서 박사학위(경제철학)를 취득했다. 일찍이 외삼촌 권진규가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흥미대학교의 경제학부 겸임교수를 지냈다. (사)권진규기념사업회를 설립, 그를 기리는 사업

## 생활속의 한방건강



## 긍정에너지와 건강 ⑥



권 희 앤(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기 위한 종교적인 기도, 따스한 대화와 미소, 취미활동, 운동, 골고루 먹기 등등은 따스한 마음의 온도를 더 높이고 유지하게 해준다.

## 4) 스스로의 자발성

살아가는 일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의해 유지되며, 내가 먹는 실체는 또 하나의 생명이다. 살아있는 것을 먹거나 또는 그것들을 죽여서 먹는다. 나는 이렇게 다른 생명을 먹어야 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받아들였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다.

'먹기 위해 사는 삶'과 '살기 위해 먹는 삶'

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인데,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먹는 것에 있다면, 이는 이성이 그다지 필요 없는 한 종류의 짐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생명을 먹는 것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의 고통이나 아픔을 자주 듣게 된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헌신을 강조하다 보면, 순리와 합리가 배제될 수 있다.

성취를 위한 필수조건 중 한들을 타인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함에 따라 목표보다 한계단 내려와서 차선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슴이 훈훈해지고 때로는 통을 해진다. 차선의 삶에는 따스함과 푸근함이 담겨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묻는 이 말은 삶이나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강박을 담는 느낌도 있다. 자신이나 누군가를 다그치는 듯한 이러한 말들이 가시가 되어 때로는 긍정의 에너지를 급히 차갑게 만들 수 있다. 극은 또 다른 극과 교집하여 짭짜게 변하는 것이 음양의 순이기 때문이다.

3) 따뜻한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관계는 상대의 성향도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따스한 마음이다. 때때로 상대가 주워하는 것을 알지만, 나 자신도 주워 내안의 따스함을 감추고 싶을 때, 참으로 난감하다. 그럼에도 나의 열기를 나눠줄 때, 그 열기는 커져서 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비록 작은 열량일지라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따스하다.

사람이 따스하면, 선의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선의 방향을 향하여, 최선과 차선을 생각하며 일을 하면 사람이 따뜻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의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심상이다.



## ■ 이달의 시

## 종가

/권순영

당신은 묵직한 족보  
가볍게 품에 안고  
가문 끌어당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바람결에 흩어진 흙씨  
뿌리 내릴 때까지  
한참 느린 듯  
빙긋이 살아가는 것도  
당신의 어진 가르침  
덕분입니다.

살의 주춧돌 훈들릴 때  
당신은 대청마루  
헛헛한 깨지 찾아와  
풀 먹인 바삭한 이불 펼치는  
자상한 손길입니다

\*권순영 시인은 2014년 한국대경문학에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와 강남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천문화상과 한국강남문학상 을 수상하였다.

##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4차)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강관리 잘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2년 5월 15일(일요일) 10:00
- ♣ 장 소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 ♣ 산 행 지 : 불암산 둘레길
- ♣ 준 비 물 : 간식 및 도시락 지참. 개인 필요 장비

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2년 5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안동권씨 대종회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월례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 시 : 2022년 5월 26일(목요일) 오후 7:00
- ♣ 장 소 : 우가촌 (02-702-5047)  
\* 우가촌이 이전했으니 찾으셨으면 바랍니다.  
이전 장소 찾아오는 길: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6번 출구, 만리동 고개 방향 50m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2년 5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